

크리스티앙 무엑스의 여정... 율리시스의 우아한 존재감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333

두 개의 포도나무 뿌리가 있다. 하나는 곧고 길게 뻗어 있고, 다른 하나는 구부러져 지표면으로 솟구치고 있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인위적으로 물을 주는 인공관개를 하지 않은 포도나무일지 마음 속으로 정해보자.

정답은 예상과 달리 땅 속으로 뿌리를 길게 뻗은 나무다. 물이 없는 환경에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애쓴 결과다. 땅 속 깊은 곳에서 그대로 뻗어올린 미네랄과 땅의 고유의 개성이 포도알로, 그리고 와인으로 그대로 전해질 수밖에 없다.

미국 나파밸리 율리시스 빈야드를 이끌고 있는 크리스티앙 무엑스(Christian Moueix·사진)는 최근 방한한 자리에서 “5~6m까지 깊게 내린 뿌리로 와인은 테루아의 본질을 가장 순수하게 표현하게 된다”며 “식재와 수확, 양조까지 와인에 최소한의 개입으로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사실 크리스티앙 무엑스는 와인업계에 서 설명이 필요없는 인물이다. 보르도 우안의 전설적인 와인너리 사프 페트뤼스를 38년간 이끌며 와인 양조의 새로운 기준



미국 나파밸리 율리시스 빈야드를 이끌고 있는 크리스티앙 무엑스(사진)가 와인 율리시스 라벨의 그림처럼 활 시위를 당기는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을 세웠고, 현재도 뽀므롤과 생페밀리옹에서 8개의 사프를 운영 중이다. 그는 가문의 전설에 머물지 않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 나파밸리에서도 도미누스 에스테이트로 테루아의 독보성을 알리고 컬트와인으로 이름을 날렸다.

보통이라면 여기서 끝날 스토리지만 크리스티앙 무엑스는 다시 한 번 길을 떠났다. 2008년 율리시스 빈야드(Ulysses Vineyard)를 인수하면서다. 같은 나파밸리에 서도 도미누스가 오프밸리라면 율리시스는 오크빌에 위치했다. 보르도 매독에서도 마고와 생줄리앙, 포이악 등이 각기 다른 개성이 있는 것처럼 나파밸리 역시 차

이가 있다. 포도나무부터 다시 심어야 하는 곳이지만 테루아에 대한 확신이 섰다.

알프레드 테나슨의 시 ‘율리시스(Ulysses)’에서 그리스 신화 속 율리시스(오디세우스)가 가나긴 모험을 거쳐 고향에 돌아갔지만 다시 도전에 나섰듯이 말이다. 그래서 포도밭도, 와인 이름도 율리시스다. “분투하고, 추구하며, 발견하고, 굴복하지 않으리라.” 이 시구에서 비롯됐다. 끝나지 않는 항해와 탐구를 노련한 시는 크리스티앙 무엑스가 평생에 걸쳐 테루아를 깊이 이해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와 닮아 있다.

율리시스는 카베네 소비뇽을 중심으로 카베네 프랑과 빠디 베르도를 조금씩 더



왼쪽부터 율리시스 2014, 2016, 2018, 2021 빈티지. /안상미 기자

해 완성했다. 와인에 크리스티앙 무엑스를 담은 게 아니라 율리시스 포도밭 자체의 개성을, 그리고 해마다 펼쳐진 기후를 고스란히 담아냈다.

2014년은 다시 심은 포도나무들이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한 해이자 지진의 빈티지다. 수확이 얼마남지 않은 8월에 진도 6이 넘는 지진이 있었는데 포도의 맛이 달라졌다. 보통 재해라고 하면 안 좋은 영향을 떠올리겠지만 포도는 오히려 맛이 좋아졌다.

그는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면서 토양이 섞였고, 강수가 올라오면서 포도나무에 좋은 변화를 줬다”고 설명했다. 10년이

흘쩍 넘었지만 여전히 좋은 산도와 벨벳 같은 질감이 잘 어우러진다.

2018년은 나파밸리에서 그레이트 빈티지로 꼽히는 해다. 좋은 발이 좋은 해를 만나 진기를 발휘했다. 나파밸리 특유의 풍요로운 과실미와 보르도식의 구조감과 우아함이 공존하는 그런 모습 말이다. 집중도 있는 과실이 매끄럽게 광택이 나는 타닌 위에 펼쳐지고, 층층이 다른 모습이 잘 짜여 있다.

크리스티앙 무엑스는 “율리시스를 한 단어로 표현하지만 유일무이한 ‘존재감’”이라며 “2018 빈티지가 딱 그런 모습”이라고 말했다.

블라인드 테이스팅이라면 2018 빈티지는 프랑스 와인인가 고개를 가웃할텐데 2021 빈티지는 미국 와인이라 확인할 만한 스타일이다. 잘 익은 과실향 뒤로 단맛이 느껴진다. 가뭄이 2년 연속 이어지면서 포도알은 깊고 강렬하게 응축됐다. 잔당감으로 매운 음식과도 어울릴 와인이다.

율리시스가 다시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섰듯 크리스티앙 무엑스의 여정 역시 끝이 아니다. 힌트는 아르고스다. 20년 만에 귀향한 율리시스를 유일하게 알아보고 반긴 중령의 이름이다.

마무리도 테나슨의 시구로 한다. “나는 여정을 그만둘 수가 없다. 내 삶의 마지막까지 다 마셔버리겠다.”

/smahn1@metroseoul.co.kr



문화 단신

롯데시네마, 극장서 스탠드업 코미디 공연

월드타워서 ‘이상준쇼-솔로파티’ 개최
오픈 1분 만에 매진... 맞춤 먹거리도

롯데시네마가 스탠드업 코미디 공연을 극장으로 끌어들이며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개그맨 이상준의 참여형 스탠드업 코미디 ‘이상준쇼-솔로파티’를 선보이며 영화관의 공간적 활용 범위를 공연 콘텐츠까지 확장한다.

롯데시네마는 오는 26일과 7월 10일, 24일 총 세 차례에 걸쳐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에서 MBC C&I가 주최·주관하는 스탠드업 코미디 공연 ‘이상준쇼 - 솔로파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관객 참여형 코너를 중심으로 꾸며진다. 연애와 결혼, 일상 속 에피소드를 소재로 한 토크와 즉흥 소동이 어우러지며, 이상준 특유의 재치 있는 입담과 현장감 넘치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관객들의 관심도 뜨겁다. 공연은 예매 오픈 1분 만에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높은 기대감을 입증했다. 이는 영화관이 단순한 영화 상영 공간을 넘어 라이브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롯데시네마는 극장이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해 공연 몰입도를 극대화할 계획이



다. 관객들은 프리미엄 소파석에서 편안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으며, 대형 스크린과 극장 음향시스템을 통해 대위 출연자의 표정과 디테일한 연기, 객석의 생생한 반응까지 더욱 실감 나게 경험할 수 있다.

공연의 즐거움을 더할 맞춤형 먹거리도 마련했다. 롯데시네마는 시원한 맥주와 나초로 구성된 ‘이상준쇼 콤보’를 출시해 공연 관람과 식음료를 결합한 차별화된 관람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롯데시네마는 그동안 라이브뷰잉, 팬미팅, 라이브 공연, 이머시브 콘텐츠 등 다양한 얼터너티브 콘텐츠를 선보이며 영화관의 역할을 확장해왔다. 이번 스탠드업 코미디 공연 역시 기존 공연장과는 다른 극장만의 관람 환경을 활용해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제안하기 위해 기획됐다.

한편, 공개 코미디로 대중의 사랑을 받은 개그맨 이상준은 최근 스탠드업 코미디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월급이라는 단단한 성에서 쌓는 노후설계

퇴사와 해고(파이어)가 미터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월급이 아팔로 무너지지 않는 가장 단단한 성의 터전이라고 외치는 직장인의 에세이가 출간됐다. 도서출판 작가의집은 유한양행 재직 23년 차인 김규철(필명 방하착) 저자의 신간 『월급이 답이다』를 펴냈다.

‘23년 차 월급쟁이가 아들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평범한 직장인이 매일의 일상을 쌓아 올린 경이로운 성장 기록이다. 지방대 문과 출신의 ‘수포자’였던 저자는 40대 중반 우연한 계기로 배움을 시작한 후, 이공계를 넘나들며 국가기술자격 53개를 포함해 총 100개의 자격증을 취득했다.

매일 새벽 5시 30분 통근길을 ‘움직이



월급이 답이다
김규철 지음 / 작가의 집

는 도서관’ 삼아 6년간 300권의 책을 읽었으며, 누적 방문자 179만 명에 달하는 블로그를 키워내며 ‘회사 안에서 자라는 사람’의 본모습을 증명했다.

저자는 ‘월급쟁이는 현대판 노예’라는 SNS의 속삭임에 속지 말라고 조언한다. 대

신 월급이라는 안정적인 자산 위에 독서, 자격증, 기록을 엮고, 국민퇴직·개인연금에 배당을 더한 ‘4중 연금 구조’를 구축하라는 현실적인 노후 설계를 제시한다.

특히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은 유한양행의 재직자로서, 유일한 박사의 사회 환원 정신을 잇기 위해 책 인세의 1%를 유한재단에 기부하기로 해 책의 의미를 더했다.

실패의 기록과 부끄러운 기억까지 솔직하게 담아낸 이 책은 ‘떠나지 못한 사람의 변명’이 아니라, ‘떠나지 않기로 한 사람의 기록’이다. 이 책은 오늘날 새벽 알람 소리에 무거운 몸을 일으키는 이 시대 모든 직장인과 그 가족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강력한 확신을 전한다.

AI 시대,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법

퍼스널 브랜딩 전문가 이찬성 대표가 AI 시대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기 위한 통찰을 담은 철학 소설 《AI가 해고한 날》을 출간했다.

이 책은 일론 머스크의 효율주의 행보에서 모티브를 얻은 우화형 소설이다. AI로부터 대체 가능성 93.3%를 통보받은

15년 차 직장인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48시간의 과정을 그린다. AI가 인간을 단 다섯 줄의 데이터로 요약하고 평가하는 시대 속에서, 숫자나 성과로는 증명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보이지 않는 가치’를 탐구한다.

독자가 직접 ‘나만의 한 문장’을 정리



하며 퍼스널 브랜딩 전략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워크북이 함께 제공된다. ‘내가 사라지면 무엇이 멈추는가?’라는 묵직한 질문을 통해, AI가 대신할 수 없는 나만의 고유한 자리를 찾도록 안내하는 책이다.



▲네타냐후 “이란 공격, 트럼프 허가 구한 적 없다... 계획 알렸을 뿐” /사진 뉴시스
▲젤렌스키 “러, 모스크바·크렘대교 방어 강화... 방공망 재배치”

▲프랑스, 폭염에 ‘반(反) 에어컨’ 금기 흔들... 환경주의자도 “일부 필요”
▲中 관영 매체 ‘군산복합체’ 이어 ‘신군국주의’ 잇단 日 비판

▲트럼프 “모든 기관에 베네수 신속지원 지시... 가까이 도울 것”
▲러 야당 부대표, 우크라이나 비판 SNS 올렸다가 징역 7년